

10.17960/ell.2015.21.1.001

영어 경동사 *Have*와 *Take*의 변이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고 광 윤 (연세대학교)

정 운 형 (연세대학교)

Goh, Gwang-Yoon and Chung, Woon-Hyung, 2015. On the Variation of English Light Verbs *Have* and *Take*: A Corpus-based Analysi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1, 1-27. The so-called light verbs in English have very often been discussed both in traditional grammar and generative linguistics. The variation shown in these verbs, especially that of *have a NOUN* vs. *take a NOUN*, however, has only been very briefly mentioned, with few previous studies having provided an extensive empirical analysis of the variation, thereby letting the phenomenon remain mostly a matter of preference in British or American Englis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riation between the light verb predicates *have a NOUN* and *take a NOU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data from ten English corpora.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have a NOUN* is generally preferred in British English, this preference is maintained only in three genres including spoken, fiction, and academic texts, with *take a NOUN*, the American form, being more common in magazines and newspapers. The use of *take a NOUN* in American English has also shown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last 200 years to become the dominant form. This increase and dominance of the *take* form in American English is very likely to have exerted influence on world Englishes including British English,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the *take* form and decrease of the alternative *have* form in almost every national variety of English.

Key words: variation, *have a NOUN*, *take a NOUN*, light verbs, diachrony, genre,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World Englishes

* 본 연구를 위한 주제 발굴 및 연구 설계는 고광윤이, 기초자료 조사는 정운형이, 자료의 분석과 결과 해석 및 원고 작성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을 읽고 심사평을 해주신 세 분 심사위원들과 역셀 작업을 도와준 조근호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1. 서론

영어에는 한국어 등 다른 많은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논항 구조를 갖지 않고 의미역을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진 일련의 동사들이 있다. 흔히 경동사(light verbs)라고 불리는 이들 동사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do*, *give*, *have*, *make*, *take*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가 탈색되어 그 의미적 내용을 주로 목적어 명사구에 의존하게 된다.

- (1) a. I'm going to let them off with a warning and have a chat with the parents. (COCA, Bk:GoneMissing 2012)
- b. The state sold that stock before Wall Street took a dive. (COCA, 2009 NBC_Dateline)
- c. there are constitutional issues involved when you make an analysis of charging a president. (COCA, CBS_FaceNation 1997)
- d. I'd simply know who he was, so he didn't give me a description of himself. (COCA, MassachRev 1996)
- e. Alice did a sketch of the dunes in her notebook. (COCA, Bk:MaineNovel 2011)

위와 같은 통사 의미적 특성 외에 경동사는 영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동사 700개 가운데 약 25%를 경동사 구조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그 쓰임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서로 다른 사용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영어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Dixon 2005: 460-461, Algeo 1995, 2006: 269-278). 따라서 영어의 경동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통문법(traditional grammar)이나 학술영문법(scholarly English grammar) 차원에서는 물론 최근까지의 생성문법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기술문법적인 설명과 이론적 연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기술문법적인 설명들은 대체로 경동사 구문이 지닌 통사 의미적 특징에 대한 관찰이나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생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연구는 직관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설명에 집중하여 실제 사용양상과 관련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히 주목할 만한 문제는 경동사 *have*와 *take*의 변이(variation)이다. 영어의 경동사 *have*와 *take*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의미 차이를 거의 수반하지 않으면서 서로 대체되어 사용된다.¹

- (2) a. When we get home, you may take a bath. (COCA, SouthernRev 2011)
 b. Why don't you have a bath, you're cold? (BNC, W_fict_prose AB9)
- (3) a. Visitors can take a walk through time, examining the state's changing environment ... (COCA, NaturalHist 2011)
 b. It is time to leave the capital and have a walk. (BNC, W_misc B1N)

경동사 *have*와 *take*가 보여주는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have*와 *take*가 각각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선호되는 표현이라는 언급은 자주 있었으나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영어 경동사의 쓰임에 관한 코퍼스 기반의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경동사의 사용양상 가운데에서도 특히 많은 경우 자유롭게 서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경동사 *have*와 *take*가 보여주는 변이를 코퍼스 자료의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어의 경동사 어구들이 지닌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BNC와 COCA를 비롯한 대표적인 영어 코퍼스 10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대안적 경동사가 보여주는 변이를 영미영어의 차이, 장르별 사용양상, 시대적 변화, 그리고 세계영어(world Englishes) 혹은 글로벌 영어(global English)를 포함하는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그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경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징

영어의 경동사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가 탈색되고 그 의미적 내용을 (다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목적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어와 결합하여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f. Huddleston & Pullum 2002: 290-296).²

1 경우에 따라 서로 대응하는 *have a NOUN*과 *take a NOUN*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Dixon(2005: 473-475)에 따르면 두 경동사 어구는 둘 다 사람을 행위자로 가지지만 *have a NOUN*은 즐거움이나 위안(pleasure or relief)을 위한 행위에 사용되는 반면, *take a NOUN*은 육체적 노력(physical effort)이 개입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듯하다(cf. Stein 1991: 21). 설사 그러한 의미 차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화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에서 항상 분명하게 구현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이므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이를 무시하기로 한다.

2 Leech et al.(2009: 166-167)에 따르면 (영어의) 경동사는 다음과 같이 그동안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4 고 광 윤 · 정 윤 형

- (4) a. Mary looked at my draft.
b. Mary had/took a look at my draft.
- (5) a. She kissed him.
b. She gave him a kiss.
- (6) a. He calculated the costs.
b. He made a calculation of the costs.
- (7) a. She danced.
b. She did a dance.

위 예문들에서 (a) 문장과 (b) 문장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서로 대체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두 문형의 통사 의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a)에서의 동사 *look(ed)*가 (4b)에서는 명사화되어 목적어 명사구의 핵어(head)로 쓰이면서 동사 *look(ed)*의 의미가 목적어인 명사 *look*으로 이전되었고, (4b)의 동사 *had*나 *took*는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를 거의 상실하여 의미적으로 매우 가벼운 경동사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속성을 지닌 영어의 경동사와 관련 구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동안 밝혀진 영어 경동사의 중요한 통사 의미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영어에서 경동사 사용 문장과 관련 대응 문장은 많은 경우 의미적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지만 두 유형의 문장이 항상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래에 주어진 두 쌍의 예문에서는 모두 경동사 *have*가 사용되고 있지만 (8a)와 (8b)는 의미가 거의 동일한 반면, (9a)와 (9b) 사이에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즉, (9a)가 ‘그가 나의 우유를 모조리 마셔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9b)는 일반적으로 ‘그가 나의 우유 가운데 일부를 마셨다’는 것을 나타내어 두 관련 문장 사이에는 무시하기 힘든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불리어 왔다: 집단동사(group verbs, Poutsma 1926), 동사-명사 어구/구문(verbo-nominal phrases or constructions, Renský 1966, Hoffmann 1972, Akimoto 1989, Stein 1991, Stein & Quirk 1991, Quirk 1995, Labuhn 2001), *take-have* 어구(*take-have*-phrasals, Live 1973), 우회동사 구조(periphrastic verbal structures, Wierzbicka 1982), 복합동사 구조(complex verbal structures, Nickel 1968), 사건목적어 구문(eventive object constructions, Quirk et al. 1985), 확장동사 구문(stretched verb constructions, Heringer 1989, Allerton 2002), 지지동사 구문(support verb constructions, Krenn 2000), 확장술어(expanded predicates, Algeo 1995, Leech et al. 2009).

³ 영어의 경동사와 관련 구문이 지닌 통사 의미적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Huddleston & Pullum(2002)와 Dixon(2005) 등을 참고하라.

- (8) a. I looked in the suitcase.
b. I had a look in the suitcase.
- (9) a. He drank my milk.
b. He had a drink of my milk.

둘째, 영어의 경동사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형태적 요건을 가진다. 우선, 경동사 사용 문장은 관련 대응 문장과 주어와 동일해야 하며 경동사 사용 문장에서 경동사는 본동사로 기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문 (10b)와 (11b)에서 동사 *had*는 본동사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10b)와 달리 (11b)는 주어 동일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동사 구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 (10) a. I kicked the ball.
b. I had a kick of the ball.
- (11) a. The horse kicked me.
b. I had a kick from the horse.

또 하나의 형태적 요건은 경동사에 후속하는 목적어 명사구의 핵어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 예를 들어, Dixon(2005: 462)은 목적어 명사구의 핵어인 명사가 반드시 대응 문장의 동사와 형태적으로 동일하고 부정관사와 함께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면에, Huddleston & Pullum(2002: 290)은 아래의 (12b)에서와 같이 동사가 접사첨가(affixation)을 통해 명사화(nominalization)된 경우도 경동사 구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12) a. John and Mary discussed about the accident.
b. John and Mary had a discussion about the accident.

셋째, 영어의 경동사 구문은 많은 경우 일정한 정도의 통사적인 유연성 (syntactic versatility)을 가진다. 따라서 경동사와 목적어의 결합관계는 어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아래의 예문 (13)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의 첨가가 가능하다.

- (13) a. She gave him a kiss.
b. She gave him an unusual passionate kiss.

마지막으로, 영어의 경동사들은 통사 의미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고유의 의미적 속성을 지녀 많은 경우 상호 대체가 어렵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동사 *have*와 *take*는, 서론의 (2)와 (3)에서 그리고 아래의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미상으로 중요한 차이를 수반하지 않고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cf. Quirk et al. 1985: 751-752, Huddleston & Pullum 2002: 295).

(14) a. I haven't had a drink for five years, and I feel great.
(COCA, MAG Newsweek 2012)

b. I haven't taken a drink for 30 years, and this is God's truth.
(COCA, Chicago 2009)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경동사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특히 경동사 *have*와 *take*가 보여주는 위와 같은 변이와 그들의 사용양상에 중점을 두어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영어의 경동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기술문법적인 연구, 생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연구, 그리고 실제 사용된 언어자료 기반의 실증적인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전통문법이나 현대 언어학의 기초 위에서 기술문법적으로 경동사와 경동사에 관련된 어구나 구문에 대해 언급하고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예: Poutsma 1926 Vol. V: 394-400, Curme 1931: 22, Kruisinga 1932: 198-200, Sapir 1949: 110-121, Jespersen 1942 Vol. VI: 117-118, Wierzbicka 1982, 1988: 293-357, Quirk et al. 1985: 750-752, Stein 1991, Algeo 1995, Brinton & Akimoto 1999, Brugman 2001, Huddleston & Pullum 2002: 290-296, Peters 2004: 322, Swan 2005: 206-207, 590, Dixon 2005: 459-483, Leech et al. 2009: 166-179). 영문법사에서 경동사에 대해 처음 논의한 학자일 것이라 생각되는 Poutsma(1926 Vol. V: 395-396)는 집단동사(group verbs)라는 명칭으로 구동사(phrasal verbs)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가운데 일부로 경동사에 해당되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영어(Modern English)에는 막연한 의미를 지니는 *give*나 *make* 같은 동사들이 행위의 명사와 결합하여 동사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경우 동사는 주로 연결사로서 쓰이고 뒤에 오는 명사가 술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 Jespersen(1942 Vol. VI: 117-118)은 처음으로 경동사(light verbs)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cf. Butt 2010: 48), 경동사의 유래와 변화가 현대 영어의 일반적인 경향, 즉 조동사 *do*, *can*, 혹은 완료의 *have*처럼 인칭과 시제를 표시해주는 기능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문법화되는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기술하면서 경동사 *have*, *take*, *give*와 함께 쓰이는 표현을 정리하고 있다. 현대 언어학의 성과와 전통문법적인 통찰을 균형 있게 반영한 Huddleston & Pullum(2002: 290-296)도 경동사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동사들 전반에 걸친 통사 의미적인 특징과 아울러 각 경동사의 개별적인 특성도 함께 잘 기술하고 있다. 한편, Dixon(2005: 459-483)은 경동사의 쓰임과 선택이 자의적이라는 Sapir(1949: 114)의 주장을 비판하며 경동사의 형태적 요건과 통사 의미적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전통문법 혹은 현대 언어학의 기초 위에서 경동사를 논의한 연구들은 경동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경동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일부 연구들도 경동사의 실제적인 사용양상과 변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닌다.

두 번째 유형의 선행 연구는 경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성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은 통찰을 통사론의 이론적 설명에 응용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다(Cattell 1984, Larson 1988, Baker 1988, Hale & Keyser 1993, Chomsky 1995, Stroik 2001, Adger 2003: 131-136, Radford 2004a: 339-67, 2004b: 272-274, Hornstein et al. 2005: 92-104). 이들 연구 가운데 Cattell(1984)은 경동사의 논의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의 체계 아래에서 경동사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생성문법의 이론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경동사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소위 VP shell이라는 개념인 듯하다. VP shell은 경동사의 통사 의미적 속성에 대한 통찰과 논항들 간의 비대칭적 위계구조를 바탕으로 Larson(1988)이 처음 제안하였고, Chomsky(1995)가 채택하여 비능격동사(ungative verbs)와 타동사에 일반화하였으며, 특히 Larson이 비어있는 동사(empty verb)라 칭한 VP shell의 핵어(head)를 Chomsky는 Baker(1988)와 Hale & Keyser(1993)의 제안에 따라 경동사(light verb)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VP-shell 개념과 구조는 생성문법 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통사적 문제의 설명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⁴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통사 이론적인 면에서의 타당성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분석

⁴ 이러한 성과의 구체적인 예로 비능격동사와 타동사를 능격(ergative)과 비대격(unaccusative) 동사로부터 구분하는 문제, 능동과 수동의 구분, 동사 상승(V-raising)의 비교언어학적인 설명 등을 들 수 있다(cf. Baker 1988, Hale & Keyser 1993, Stroik 2001).

에 치우쳐 표현의 실제 사용 측면이나 변이 양상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 본 두 가지 유형의 선행연구들, 즉 기술문법적인 연구들과 생성 문법 중심의 이론적 연구들은 모두 그동안 쌓아온 많은 성과와 통찰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경동사 구문과 관련된 실제 사용양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닌다. 특히,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경동사 *have*와 *take*는 큰 의미 차이 없이 서로 대체되어 쓰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영국영어나 미국영어에서 어느 한쪽이 선호된다는 관찰이나 언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예: Quirk 1985: 751-752, Huddleston & Pullum 2002: 295-296, Swan 2005: 207), 실제적인 사용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도 지난 30여 년간 눈부시게 성장한 코퍼스 언어학의 발전에 힘입어 언어연구의 전반에 걸쳐 언어의 사용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영어의 경동사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예: Stein & Quirk 1991, Algeo 1995, 2006, Biber et al. 1999, Trudgill et al. 2002, Leech et al. 2009). 좀 더 구체적으로, Algeo(1995, 2006: 269-278)는 경동사들의 빈도수가 LOB 코퍼스와 Brown 코퍼스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고, Biber et al.(1999: 1026-1029)은 LSWE(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 코퍼스의 분석을 기반으로 경동사 어구들의 쓰임을 장르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Trudgill et al.(2002)은 미국영어에서의 경동사 *have*가 영국영어에서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영어가 *have*의 다양한 의미적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경동사에 대한 코퍼스 기반의 가장 본격적인 연구는 Leech et al.(2009: 116-180)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4개의 Brown 계열 코퍼스(= Brown, Frown, LOB, FLOB)와 BNCdemog(= BNC의 구어 부분 중 일부) 및 구어 미국영어 코퍼스인 LCSAE(Longman Corpus of Spoken American English)의 분석을 바탕으로 *give*, *have*, *take*가 형성하는 확장술어(expanded predicates)의 사용양상과 변이를 문체(소설 vs. 비소설), 통시(1960년대 vs. 1990년대), 지역(영국 vs. 미국)의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확장술어라 칭하는 경동사 어구가 비소설보다는 소설 텍스트에서,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미국영어보다는 영국영어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며, 영국영어가 *have*를 선호하는 반면 미국영어는 *take*를 선호한다고 한다.

코퍼스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경동사 구문의 사용양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코퍼스 기반의 연구들은 주로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들의 성격으로 인해 장르, 지역적 차이, 역사적 변화 등을 포함하는 변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have*와 *take*의 변이에 대해서는 Leech et al.(2009)과 같은 일부 연구에서 장르적 요인을 부분적으로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의 선호를 언급한 것 외에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영어의 경동사에 대해서는 전통문법에서는 물론 생성문법에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구문의 사용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have*와 *take*가 보여주는 변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는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코퍼스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동사 *have*와 *take*가 보여주는 변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각각 지배적이라고 알려진 *have*와 *take*는 두 국가의 영어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둘째, 그 전형성이나 선호 정도는 장르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두 경동사의 변이는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가? 마지막으로, 영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세계영어에서는 두 대안적 표현의 쓰임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3.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3.1. 코퍼스

본 연구에서는 영어 경동사 *have*와 *take* 관련 구문의 사용양상과 변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석하기 위해 현재 이용 가능한 총 10개의 현대 영어 코퍼스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코퍼스는 Brown 코퍼스 계열의 6개 코퍼스(Brown family of corpora: Brown, Frown, AmE06, LOB, FLOB, BE06),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대표적인 대용량 코퍼스인 BNC(British National Corpus)와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미국영어 통시 코퍼스인 COHA(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 그리고 다양한 영어 사용 국가의 영어자료를 모아 만든 GloWbE(Corpus of Global Web-based English)를 포함한다.⁵

<표 1> 분석 대상 코퍼스

코퍼스	텍스트 연도	규모(단어)	국가	비고
Brown	1961	100만	미국	문어
Frown	1991-1992	"	"	"
AmE06	2006 전후	"	"	"
LOB	1961	"	영국	"
FLOB	1991-1992	"	"	"
BE06	2006 전후	"	"	"
BNC	1960-1990	1억	"	문어 90% 구어 10%
COCA	1990-2012	4.6억	미국	문어 80% 구어 20%
COHA	1810-2009	4억	"	통시 코퍼스
GloWbE	2012-2013	19억	20개국	세계영어

본 연구에서는 우선 Brown 계열의 코퍼스 가운데 Brown 코퍼스를 포함한 6개의 현대 영미영어 코퍼스를 사용했다. 이들 코퍼스는 19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6년 전후의 영국영어를 대표하는 LOB, FLOB, BE06 코퍼스와 동일한 시기의 미국영어를 대표하는 Brown, Frown, AmE06 코퍼스를 포함하며, 각각 2000 단어 크기의 텍스트 조각 500개로 이루어진 약 100만 단어 규모의 현대 영어 문어 코퍼스이다. 특히 이들 6개 코퍼스는 시기적으로 일정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텍스트 범주의 구성 면에서도 거의 동일하여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공시적 통시적 비교 연구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BNC는 구어와 문어 텍스트가 각각 10%와 90%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1억 단어 규모의 현대 영국영어 코퍼스이다. (Brown 코퍼스 계열의 영국영어 코퍼스인 LOB, FLOB 및 BE06 코퍼스와) 현대 영국영어의 가장 대표적인 코퍼스인 BNC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해당 변이가 영국영어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그 양상이 미국영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미국영어 코퍼스인 COCA와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장르 구분을 지닌 BYU-BNC를 사용하였다.⁶

⁵ 각 코퍼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Brown 계열 코퍼스 (<http://129.177.24.52/icame/manuals/>, <http://www.helsinki.fi/varieng/CoRD/corpora>, <http://www.ling.lancs.ac.uk/profiles/Paul-Baker>), BNC (<http://www.natcorp.ox.ac.uk>, <http://corpus.byu.edu/bnc>), COCA (<http://corpus.byu.edu/coca/>), COHA (<http://corpus.byu.edu/coha>), GloWbE (<http://corpus2.byu.edu/glowbe>).

영국의 BNC와 자주 비교되는 COCA는 현재 그 규모가 약 4억 6000만 단어 정도인 대규모 미국영어 코퍼스이다. 이 코퍼스는 1990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천만 단어 정도의 텍스트를 모아 구축하였으며, 구어(spoken), 소설(fiction), 잡지(magazine), 신문(newspaper), 학술저널(academic)을 포함하는 5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COCA는 현대 미국영어의 모습을 주요 장르별로 공시와 통시의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현대 영국영어의 BNC에서 얻은 분석결과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코퍼스이다.

한편, 공시적인 성격을 주로 지닌 COCA와는 달리 COHA는 181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0년간에 걸친 미국영어 텍스트를 모아 구축한 4억 단어 정도 규모의 통시 코퍼스이다. 특히 COHA는 매 10년마다의 언어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코퍼스인데,7 본 연구에서는 COHA의 분석을 통해 경동사 *have*와 *take*의 대립적인 사용양상이 미국영어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코퍼스는 GloWbE인데, 이 코퍼스는 20개에 이르는 영어 사용 국가의 웹페이지 180만개 가량에서 추출한 영어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약 19억 단어 규모의 코퍼스이다. 수많은 영어 사용 국가를 아우르는 이 초대형 코퍼스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세계영어들 속에서 경동사 *have*와 *take*가 어떤 사용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3.2. 분석도구 및 방법

위에서 설명한 총 10개의 영어 코퍼스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분석 도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Brown 계열 코퍼스의 검색과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WordSmith Tools 6.0을, BYU-BNC, COCA, COHA 및 GloWbE 코퍼스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코퍼스와 연동된 검색

6 BYU-BNC는 브리검영대학교의 코퍼스 사이트(<http://corpus.byu.edu>)에서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하는 BNC의 한 버전으로서 본래의 BNC와는 달리 검색결과를 다음의 7개 장르로 분류하여 보여주므로 자료의 검색과 분석에 여러모로 편리하다: 구어(spoken), 소설(fiction), 잡지(magazine), 신문(newspaper), 비학술(non-acad), 학술(academic), 기타(misc).

7 COHA의 매 10년별 텍스트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1810년대(=1810~1819년)의 경우 120만 단어 정도이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880년대(=1880~1889년)에는 2000만 단어를 넘어섰고 2000~2009년 사이의 시기는 약 2900만 단어 정도가 된다. COHA의 각 구간별 텍스트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810s (120만), 1820s (700만), 1830s (1380만), 1840s (1600만), 1850s (1650만), 1860s (1710만), 1870s (1860만), 1880s (2090만), 1890s (2120만), 1900s (2250만), 1910s (2270만), 1920s (2560만), 1930s (2440만), 1940s (2410만), 1950s (2440만), 1960s (2390만), 1970s (2380만), 1980s (2520만), 1990s (2790만), 2000s (2950만).

엔진을 사용하였다. 또한, 검색결과의 편집과 분류, 각종 통계자료의 산출, 테이블 및 그래프 작성을 위해서는 주로 Microsoft사의 Excel 200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영어 경동사 구문에 쓰인 *have*와 *take*의 대안적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대응하는 *have*와 *take* 경동사 어구를 각각 20개씩 선정하여 총 40개의 경동사 어구를 분석하였다. 이들 경동사 어구들은 의미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어 일반적으로 상호 대체하여 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 (15) *have/take a bath, have/take a bite, have/take a break*
have/take a drink, have/take a guess, have/take a lick (of)
have/take a look, have/take a nap, have/take a pity (on)
have/take a rest, have/take a ride, have/take a seat
have/take a shave, have/take a shower, have/take a sip
have/take a sleep, have/take a smoke, have/take a swim
have/take a walk, have/take a wash

위와 같이 선택된 영어 코퍼스와 경동사 어구를 가지고 행한 분석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현의 검색에 앞서 선택된 10개의 코퍼스 가운데 4개의 코퍼스(= Brown, Frown, LOB, FLOB 코퍼스)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매 행마다 표기된 행 번호 등 텍스트 외적인 요소를 삭제하는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부 코퍼스에 대한 이와 같은 수정 작업을 완료한 후 선택된 10개의 코퍼스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have/take* 경동사 어구를 해당 코퍼스에 연동된 검색 엔진이나 WordSmith Tools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모든 용례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모든 용례를 검토한 결과 실제 분석 대상이 아닌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경동사 어구가 아닌 다음과 같은 용례들은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6) a. I always have a shower cap. (COCA, NBC_Today 2010)
 b. More to the point, though, we've had a break through with Cuba. (COCA, NPR_Weekend 1994)

⁸ 상호 대체 가능한 *have/take* 경동사 어구의 목록은 주로 다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Quirk et al.(1985: 751-752), Huddleston & Pullum(2002: 295), Dixon(2005: 459-483), Leech et al. (2009: 178).

- c. If you don't have a shave brush, mimic the effects by applying a warm compress to skin ... (COCA, Shape 2010)
- (17) a. Wear one pair for 2 to 3 hours, take a rest break, air-dry your feet, then put on a dry pair. (COCA, SouthernRev 2005)
- b. She has not taken a sleep test for sleep apnea. (COCA, SatEvenPost 2006)
- c. He shook out the section of net he was working on, took a smoke break. (COCA, SouthernRev 2003)

이와 같은 선별 과정을 통해 걸러진 용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형별로 단순 빈도(raw frequency), 정규화 빈도(normalized frequency), 백분율, 상대적인 비율, 총계 등 연구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계자료와 해당 표현들의 사용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영미영어에서의 일반적 사용양상

영어의 경동사 *have*와 *take*의 대안적 쓰임과 그 변이를 각 요인별로 자세히 살펴 보기 전에 먼저 두 경동사의 쓰임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대표적 견해나 주장이 실제 사용양상과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검토해보기로 하자. 다음은 Brown 계열의 6개 영어 코퍼스에서 *have*와 *take*가 서로 대체되어 쓰일 수 있는 20개 쌍의 경동사 어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⁹

<표 2> 영미영어에서의 사용양상 (Brown family)

경동사	국가	영국	미국
		(LOB+FLOB+BE06)	(Brown+Frown+AmE06)
<i>have a N</i>		70 (46.1%)	37 (29.6%)
<i>take a N</i>		82 (53.9%)	88 (70.4%)
합계		152 (100.0%)	125 (100.0%)

⁹ Brown 계열의 6개 코퍼스에서 검색한 경동사 어구는 모두 40개로서 (15)에 주어지 있다. 각각 10만 단어 정도인 작은 규모를 고려하여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삽입된 경우(예: *have/take a closer look*)도 검색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 논의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동사 어구의 사용에 관한 그동안의 일반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는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영어보다는 영국영어에서 더 많이 쓰이며, *have*와 *take*가 각각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선호된다는 것이다(예: Quirk et al. 1985: 751-752,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1995: 151, Biber et al. 1999: 1028-1029, Trudgill et al. 2002, Swan 2005: 207, Algeo 2006: 270, Leech et al. 2009: 176). 이와 관련하여 위 표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경동사 어구의 사용빈도는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각각 152개와 125개로 영국영어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have*는 영국영어에서 *take*는 미국영어에서 선호됨을 알 수 있다. Brown 계열 코퍼스에서 얻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동사 어구의 쓰임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단 선행연구들의 관찰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결과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take*가 월등하게 많이 쓰이는 미국영어에서는 물론이고 영국영어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have*보다는 *take*의 사용비중이 더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기대와 약간 다른 결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혹자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분석에 사용된 코퍼스의 규모와 구성으로 인해 그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have*와 *take* 경동사 어구의 (국가별) 사용양상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실제로, 위의 분석에서 사용된 Brown 계열의 코퍼스들은 그 규모가 각각 100만 단어 정도로서 1억 단어 이상인 BNC나 COCA 등의 대용량 코퍼스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선행연구들에서 경동사 어구가 많이 사용된다고 주장된 비격식의 구어 텍스트는 (소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는 경동사 어구의 실제 사용양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위 분석결과는 영국 영어와 미국영어에서 각각 약 45년간의 기간을 통합한 결과이므로 그 사이의 통시적 변화로 인해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가 희석되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rown 계열 코퍼스에서 얻은 위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rown 계열 코퍼스는 그 작은 규모와 텍스트 구성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대표적인 대용량 코퍼스인 BNC와 COCA의 분석을 통해 *have*와 *take* 경동사 어구의 국가별 사용양상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표는 두 코퍼스에서 관련 경동사 어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영미영어에서의 사용양상 (BNC vs. COCA)¹⁰

경동사 \ 국가	영국 (BNC)	미국 (COCA)
<i>have a N</i>	3,018 / 30.68 (75.8%)	3,460 / 7.46 (13.9%)
<i>take a N</i>	962 / 9.78 (24.2%)	21,465 / 46.26 (86.1%)
합계	3,980 / 40.46 (100.0%)	24,925 / 53.72 (100.0%)

위 분석결과를 보면 (비록 미국영어에서의 *take*에 대한 선호가 영국영어의 *have*에 대한 선호보다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Brown 계열 코퍼스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영국영어에서는 *have*가 미국영어에서는 *take*가 각각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서로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동사 *have*와 *take*에 관한 한) 경동사 어구가 영국영어에서보다는 미국영어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영어보다 영국영어에서 경동사 어구가 더 많이 쓰인다고 주장한 Leech et al.(2009: 176, 179)의 분석결과와 상치되는 결과라서 흥미롭다.

이렇게 서로 상치되는 결과는 주로 두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각각 1억과 4억 6천만 단어 정도 규모인 BNC와 COCA를 사용한 본 연구와는 달리 Leech et al.(2009)의 경우 (Brown, Frown, LOB, FLOB를 포함하는 4개의 Brown 계열 코퍼스 외에) 약 420만 단어 규모인 BNCdemog 코퍼스와 약 500만 단어 규모인 LCSAE 코퍼스를 사용하고 있어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BNC와 COCA가 구어와 문어의 각 장르를 비교적 골고루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Leech et al.(2009)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장르별 균형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표 3>에 주어진 BNC와 COCA를 통한 영미영어의 포괄적 비교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경동사가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진 구어 장르의 비율이 BNC와 COCA에서 각각 10%와 20%로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Leech et al.(2009)을 포함한 이전 연구의 관련 주장은 코퍼스 규모와 텍스트 구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르별 사용양상의 고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4.2 장르별 사용양상

지금까지 우리는 Brown 계열 코퍼스, 그리고 BNC와 COCA에서 얻은 자료를

¹⁰ 각 셀에서 괄호 밖의 숫자는 각각 단순 빈도와 100만 단어 당 빈도를 나타낸다.

바탕으로 *have*와 *take* 경동사 어구의 변이와 사용양상을 주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은 두 경동사 어구의 사용양상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히 Brown 계열 코퍼스의 경우 모두 문어 장르의 텍스트만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표현들의 사용양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have*와 *take* 경동사 어구의 장르별 사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BNC를 장르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4> 장르별 사용분포 (BNC)

장르	코퍼스	BNC	
		<i>have a N</i>	<i>take a N</i>
구어		2,071/207.10 (96.1%)	83/8.30 (3.9%)
소설		756/44.47 (56.0%)	593/34.88 (44.0%)
잡지		80/5.00 (35.2%)	147/9.19 (64.8%)
신문		86/7.82 (41.0%)	124/11.27 (59.0%)
학술		25/1.56 (62.5%)	15/0.94 (37.5%)
전체		3,018/30.68 (75.8%)	962/9.78 (24.2%)

위 표에 주어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have*의 사용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경동사 어구가 비격식체의 구어 텍스트에서 그리고 비소설보다는 소설 텍스트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예: Leech et al. 2009: 178)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구어 텍스트에서 그 지배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설 장르에서 *have*의 사용비중이 *take*보다 높은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데, 이는 소설에 대화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구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장르별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격식성에서 구어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학술 장르에서도 *have*의 사용비중이 *take*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영어에 미치는 미국영어의 지속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학술 장르에서는 영국적인 표현인 *have*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잡지와 신문을 포함한 뉴스 매체에서는 *have*보다 *take*의 사용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언어적으로 미국영어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영국영어의 경우 특히 잡지와 신문 장르에서 경동사 사용의 미국화(Americanization)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BNC의 장르별 분석결과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동사 *have*가 영국영어의 전형적인 선택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5개의 주요 장르 가운데 구어와 소설 및 학술 장르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적어도 잡지와 신문을 포함하는 뉴스 매체 장르에서는 더 이상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BNC가 1960-1990년 사이에 출판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과 지난 25년 동안 미국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영국영어에서 *take*의 사용이 더 늘어나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Leech et al.(2009)을 포함한 관련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장르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¹¹

다음은 미국영어 코퍼스인 COCA에서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의 사용분포를 장르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장르별 사용분포 (COCA)

장르	코퍼스	COCA	
		<i>have a N</i>	<i>take a N</i>
구어		917/9.61 (7.1%)	12,024/126.06 (92.9%)
소설		1,770/19.59 (25.1%)	5,287/58.52 (74.9%)
잡지		419/4.38 (16.0%)	2,203/23.05 (84.0%)
신문		251/2.74 (14.2%)	1,521/16.59 (85.8%)
학술		103/1.13 (19.3%)	430/4.72 (80.7%)
전체		3,460/7.46 (13.9%)	21,465/46.26 (86.1%)

위 표에 주어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장르에 걸쳐 *have*보다 *take*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이러한 *take*의 압도적 사용비중은 특히 구어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어체 대화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구어와 상당히 유사한 장르라고 여겨지는 소설에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자체의 출판시기와 텍스트 내용의 시간적 배경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¹¹ 앞서 Brown 계열 코퍼스의 분석에서는 영국영어에서도 *have*(=46.1%)보다 *take*의 사용비중(=53.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Brown 계열 코퍼스들이 문어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have*의 사용이 압도적인 구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Brown 계열 코퍼스들의 분석결과도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이외의 문어 장르에서는 기술되는 내용의 시간적 배경이 해당 텍스트의 생산 시기와 대부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소설의 경우 기술 내용의 시간적 배경이 해당 작품들의 집필이나 출판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예: 2015년에 발표된 소설이 190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용의 시간적 배경은 텍스트에 사용되는 언어의 모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술되는 내용의 시간적 배경이 더 최근인 비소설 문어 장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 양상(특히, 이 경우 *take*의 지배력 강화)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take*의 사용비중이 소설 텍스트에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한편, COCA 전체에서 *take*가 차지하는 비중은 86.1% 정도인데 이는 앞서 4.1절에서 3개의 Brown 계열 코퍼스(Brown+Frown+AmE06)를 바탕으로 분석한 미국 영어에서의 사용분포에서 *take*의 사용비중이 약 70.4% 정도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사용된 코퍼스의 장르별 구성과 포함된 텍스트의 출판시기를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Brown 계열 코퍼스에 포함되지 않은 구어 텍스트를 COCA에서 제외하고 결과를 다시 산출해보면 *take*의 사용비중은 78.8% 정도로서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더욱이 Brown 계열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의 출판 시기(1960~2006년 전후)가 COCA 텍스트의 출판시기(1990~2012년)보다 앞선다는 점과 그동안 *take*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어 왔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약 8% 정도의 차이는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rown 계열 코퍼스에서 얻은 분석결과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코퍼스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르별 사용양상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 4.1에서 불충분하게 논의되었던 문제, 즉 영국영어에서 경동사의 사용이 더 빈번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다음은 BNC와 COCA의 장르별 텍스트의 비율이 달라 비교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단순빈도 대신 정규화된 100만 단어 당 빈도를 산출하여 영미영어에서의 경동사 사용빈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6> 장르별 정규화 빈도 *have a N + take a N*

코퍼스	BNC	COCA
구어	215.40	135.67
소설	79.35	78.11
잡지	14.19	27.43
신문	19.09	19.33
학술	2.50	5.85
합계 (전체/문어)	330.53/115.13	266.39/130.72

위 표에 주어진 경동사의 정규화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국영어에서 경동사의 사용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eech et al.(2009)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훨씬 더 큰 코퍼스 규모와 장르별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을 좀 더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구어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미국영어에서 경동사의 사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동사의 사용빈도가 주로 영국영어의 구어적인 특성임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언어적 표현의 사용양상을 기술함에 있어 장르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3. 통시적 양상

지금까지 4.1과 4.2에서는 Brown 계열 코퍼스와 BNC 및 COCA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가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장르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며, 대안적으로 사용되는 두 경동사의 쓰임이 이전 연구들에서 밝힌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시적 분석결과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각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의 출판시기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have*와 *take*의 대립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은 Brown 계열의 6개 코퍼스에서 얻은 자료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표 7> 영미영어에서의 통시적 변화 (Brown family)

코퍼스		<i>have a N</i>	<i>take a N</i>
영 국	LOB (1960s)	30 (58.8%)	21 (41.2%)
	FLOB (1990s)	14 (38.9%)	22 (61.1%)
	BE06 (2000s)	26 (40.0%)	39 (60.0%)
미 국	Brown (1960s)	21 (52.5%)	19 (47.5%)
	Frown (1990s)	11 (24.4%)	34 (75.6%)
	AmE06 (2000s)	5 (12.5%)	35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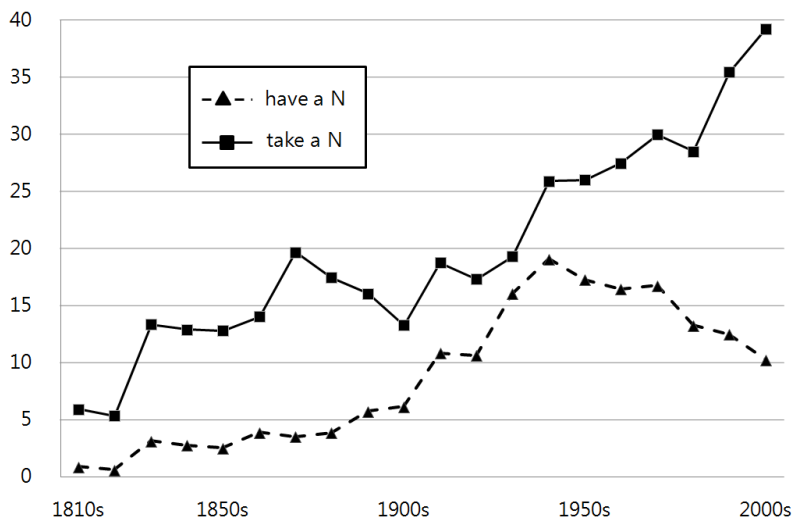
위 표에 주어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국영어의 경우 1960년대에는 *have*가 60:40 정도로 더 많이 쓰이다가 1990년대부터는 40:60 정도로 역전되어 영국영어에서도 *take*의 사용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영어의 경우 1960년대에는 *have*와 *take*의 사용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가 이후로는 *take*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더욱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영국영어에서도 1990년대 이전에 이미 미국형 *take*의 사용이 더 선호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하지만 위 분석결과는 구어 텍스트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코퍼스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 주어진 통시적 분석결과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지 시간적으로 각각 30년과 15년 정도의 간격을 둔 세 시점만을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역사적 변천의 전체적인 실제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훨씬 긴 기간을 짧은 간격으로 관찰할 수 있는 COHA의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해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은 COHA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가 사용된 빈도를 정규화하여 1810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매 10년 단위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¹²

¹² x축과 y축의 숫자는 각각 시기와 100만 단어 당 빈도를 나타내며, 각 시기는 10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x축 맨 좌측의 1810s은 1810년부터 1819년까지의 10년을 가리킨다.

<그림 1> 미국영어에서의 통시적 변화 (COHA)



위에 주어진 그래프를 살펴보면,¹³ 1810년부터 1950년대 직전까지는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의 사용빈도가 계속 함께 증가하여 경동사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부터는 *take*의 증가세는 가파르게 계속된 반면, *have*의 사용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러한 상반된 추세가 동일하게 지속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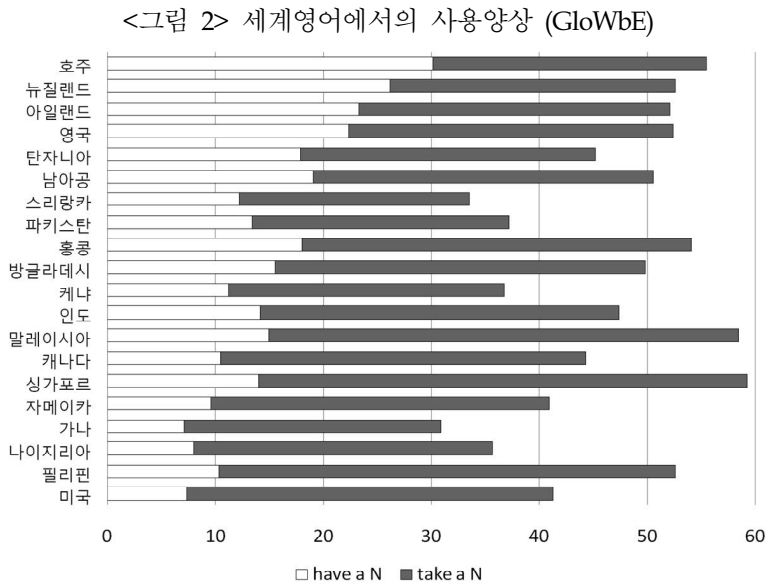
위와 같은 COHA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현재까지의 통시적 모습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방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 적어도 미국영어에서는 경동사 *take*의 지배력이 더욱 커져 *have*의 사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한 이러한 통시적 변화를 Brown 계열 코퍼스의 분석에서 나타난 영국영어의 변화에 적용해 볼 때 경동사 *take*의 지배력 강화로

¹³ 1810년부터 2009년까지 매 10년간 COHA에서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가 쓰인 실제 빈도와 정규화된 100만 단어 당 빈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Have a NOUN*: 1810s(1/0.85), 1820s(4/0.58), 1830s(43/3.12), 1840s(44/2.74), 1850s(41/2.49), 1860s(66/3.85), 1870s(65/3.49), 1880s(80/3.83), 1890s(121/5.71), 1900s(138/6.12), 1910s(245/10.81), 1920s(272/10.61), 1930s(391/16.02), 1940s(460/19.05), 1950s(421/17.26), 1960s(393/16.42), 1970s(398/16.74), 1980s(334/13.27), 1990s(347/12.45), 2000s(302/10.24); *Take a NOUN*: 1810s(7/5.93), 1820s(37/5.34), 1830s(184/13.36), 1840s(207/12.90), 1850s(211/12.79), 1860s(240/14.01), 1870s(366/19.67), 1880s(364/17.44), 1890s(340/16.05), 1900s(299/13.26), 1910s(425/18.76), 1920s(444/17.32), 1930s(471/19.29), 1940s(626/25.93), 1950s(635/26.03), 1960s(658/27.50), 1970s(713/30.00), 1980s(718/28.52), 1990s(989/35.48), 2000s(1157/39.25).

요약되는 미국영어의 모습이 영국영어에도 영향을 미쳐 *take*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have*의 사용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미국영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경동사 *take*의 지배력 강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세계화와 미국화의 흐름 속에서 영국영어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어에도 영향을 미쳐 각국의 영어에서 경동사 *take*의 상대적 사용비중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4.4. 세계영어 속에서의 사용양상

이제 논의의 마지막으로 세계영어 속에서의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의 사용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은 웹에서 수집한 20개국의 영어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GloWbE 코퍼스에서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정규화된 빈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¹⁴



위 그래프에 주어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동사 *have*의 상대적인 사용비중이 호주영어에서 가장 높고 미국영어에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경동사

¹⁴ <그림 2>에 제시된 그래프는 *have*의 상대적인 비중이 가장 큰 나라(호주=54.3:45.7)부터 가장 낮은 나라(미국=17.9:82.1)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take*의 상대적 사용비중은 미국에서 가장 높고 호주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GloWbE 코퍼스에 포함된 나라들 가운데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했으며 다수는 여전히 영연방에 속한 나라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과거에는) 이들 국가의 영어가 미국영어보다는 영국영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영국영어보다 더 영국영어적인) 호주영어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영어에서 현재에는 *have*보다 *take*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거스르기 힘든 미국화 추세와 미국영어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저하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영어 사용국가가 미국이나 미국영어의 영향을 점점 크게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영어의 경동사 *have*와 *take*가 보여주는 변이에 대해 현대 영어의 다양한 코퍼스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실제적인 쓰임을 영미영어의 차이, 장르별 양상, 시대적 변화 그리고 세계영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rown 계열의 6개 코퍼스를 분석하여 경동사 *have*와 *take* 어구의 국가별 사용양상을 살펴 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영어에서는 물론 영국영어에서도 *have*보다 *take* 어구의 사용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어 텍스트가 포함된 BNC와 COCA의 분석결과에서는 영국영어의 경우 *have* 어구의 사용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한편, 경동사 어구의 전체적인 사용량은 Brown 계열 코퍼스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영국영어에서 더 많았으나, 코퍼스의 규모와 구성 면에서 보다 나은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BNC와 COCA에서는 (비록 구어 장르의 비율이 각각 10%와 20%로 코퍼스 구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영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BNC와 COCA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르별 사용양상을 보면, *take*의 사용이 모든 장르에 걸쳐 압도적인 미국영어 코퍼스 COCA에서와는 달리, 영국영어 코퍼스 BNC의 경우 구어와 소설 및 학술 텍스트에서는 *have*의 사용비중이 더

높았으나 잡지와 신문에서는 오히려 *take*의 사용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동사 *have*가 영국영어에서 선호되는 형태라는 일반화된 주장에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동사의 전체적 사용빈도를 장르별로 검토한 결과, 구어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미국영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국영어가 경동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구어적 장르에만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Brown 계열 6개 코퍼스를 통해 살펴 본 영미영어의 통시적 분석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일찌감치 *take*가 우세를 점한 미국영어에서는 물론 영국영어에서도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영국적 선택이라 여겨지는 *have*보다 *take*가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HA를 통해 지난 200년간의 미국영어에서 두 대안적 경동사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1950년대까지 두 경동사의 쓰임이 꾸준히 함께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have*가 계속 감소하는 반면 *take*의 사용은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미국영어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으며, 앞으로 경동사 *have*가 미국영어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GloWbE 코퍼스를 통해 20개국의 다양한 세계어에 쓰인 경동사 *have*와 *take*의 사용양상을 살펴 본 결과, 호주만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필리핀은 물론 영국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have*보다는 *take*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영어에 대한 미국영어의 영향력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적인 미국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에 언어학 연구에 있어 언어의 실제적 쓰임과 변이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주목을 끌고 있다. Wolfram(2006)은 언어 구조가 언어의 심장이라면 변이는 언어의 영혼이라 할 수 있고, 변이는 인간 언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 그룹, 공동체, 국가, 민족을 구별 짓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과 언어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Henry(2002) 역시 그동안의 영어 연구가 표준화된 영어만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았지만 변이 연구는 일반 화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한국의 영어학도들 사이에서 영어의 실제 사용양상과 변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이러한 인식의 고양을 바탕으로 코퍼스 기반의 실증적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Adger, D. 2003. *Core Syntax: A Minimalist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kimoto, M. 1989. *A Study of Verbo-nominal Structures in English*. Tokyo: Shinozaki Shorin.
- Algeo, J. 1995. Having a Look at the Expanded Predicate. In B. Aarts and C. F. Meyer (eds.) *The Verb in Contemporary English: Theory and Description*, 203-21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geo, J. 2006. *British or America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erton, D. J. 2002. *Stretched Verb Constructions in English* (Routledge Studies in Germanic Linguistics 7). London: Routledge.
- Baker, M. C.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rinton, L. and M. Akimoto. 1999. *Collocational and Idiomatic Aspects of Composite Predicates in the History of English*. Amsterdam: Benjamins.
- Brugman, C. 2001. Light Verbs and Polysemy. *Language Sciences* 23.4, 551-578.
- Butt, M. 2010. The Light Verb Jungle. Still Hacking Away. In M. Amberber, B. Baker, and M. Harvey (eds.) *Complex Predicates: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n Event Structure*, 48-7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ttell, R. 1984.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Vol. 17. Sydney: Academic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1995.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 Curme, G. O. 1931.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Boston: Heath.
- Dixon, R. M. W. 2005.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e, K. and S. J.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53-71,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enry, A. 2002. Variation and Syntactic Theory. In J. K. Chambers, P. Trudgill, and N. Schilling-Estes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67-282.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Heringer, H. J. 1989. *Lesen, Lehren, Lernen: Eine Rezeptive Grammatik des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Hoffmann, A. S. 1997. *Mandative Sentences. A Study of Variation on the Basis of the British National Corpus*. Unpublished Lizentiats-Arbeit, Universität Zürich.
- Hornstein, N., J. Nunes, and K. Grohmann 2005. *Understanding Minim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42.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 Morpholog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Krenn, B. 2000. *The Usual Suspects. Data-oriented Models for Identification and Representation of Lexical Collocations*. Saarbrücken: German Research Cent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Kruisinga, E. 1932. *A Handbook of Present-Day English*. Groningen: Noordhoff.
- Labuhn, U. 2001. *Von Give a Laugh bis Have a Cry. Zu Aspektualität und Transitivität der V+N-Konstruktionen im Englischen*. Frankfurt, Main: Peter Lang.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Leech, G., M. Hundt, C. Mair, and N. Smith. 2009. *Change in Contemporary English: A Grammatical Study*, 166-1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ve, A. H. 1973. The Take-Have Phrasal in English. *Linguistics* 95, 31-50.
- Nickel, G. 1968. Complex Verbal Structures in English.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6, 1-21. [Reprinted in N. Dietrich (ed.) 1978, *Studies in Descriptive English Grammar*, 63-83. Heidelberg: Julius Groos].
- Peters, P. 2004. *The Cambridge Guide to English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utsma, H. 1926.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For the Use of Continental, Especially Dutch Students, Part. II, The Parts of Speech, Section 2, The Verb and the Particles*. Groningen: Noordhoff.
- Quirk, R. 1995. *Grammatical and Lexical Variance in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 2004a.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2004b.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ský, M. 1966. English Verbo-Nominal Phrases: Some Structural and Stylistic

- Aspects.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1, 289-299.
- Sapir, E. 1949.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Edited by D. G. Mandelbaum.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ein, G. 1991. The Phrasal Verb 'Type To Have A Look' in Modern English.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29.1, 1-30.
- Stein, G. and R. Quirk. 1991. On Having a Look in a Corpus. In K. Aijmer and B. Altenberg (eds.) *English Corpus Linguistics. Studies in Honour of Jan Svartvik*, 197-203. London: Longman.
- Stroik, T. 2001. On the Light Verb Hypothesis. *Linguistic Inquiry* 32.2, 362-369.
- Swan, M. 2005.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udgill, P., T. Nevalainen, and I. Wischer. 2002. Dynamic *Have* in North American and British Isles English.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6.1, 1-15.
- Wierzbicka, A. 1982. Why Can You Have a Drink When You Can't *Have an Eat? *Language* 58.4, 753-799.
- Wierzbicka, A. 1988. *The Semantics of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 Wolfram, W. 2006. Variation and Language: Overview. In K. Brown, A. H. Anderson, L. Bauer, M. Berns, G. Hirst, and J. Miller (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3, 333-341.

고광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123-2328, goh@yonsei.ac.kr

정운형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123-2328, happywoon@yonsei.ac.kr

접 수: 2015년 1월 28일

심사필: 2015년 3월 11일

수정필: 2015년 4월 10일